

보도자료	 사 단 법 인 개성공단 기업협회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배포즉시 ('19.4.24)	협회 사무국	T. 02) 778-3270~2 F. 02) 778-3280
제 목 : 황교안 대표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지난 22일(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황교안 당대표는 “전국 공단의 중소기업들은 정말 모두 죽을 노릇인데 대통령은 오로지 개성공단 살리기에만 목을 매고 있다.” 고 말하였다.

개성공단 폐쇄로 개성기업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3년 넘게 겪고 있다. 매출액 급감에 경영난은 가중되었고 급기야 기업인 한분은 운명을 달리했으며 도산한 기업도 여럿이다.

황 대표의 발언은 당사자인 우리 개성기업인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개성기업인들을 벼랑끝으로 몰아간 개성공단의 위법적인 폐쇄 당시의 박근혜 정부 총리가 바로 황교안 대표였다. 우리 개성기업인들은 나라에 떨어져 있건만 황교안 대표는 개성공단을 정쟁의 도구로 끌어들이는데만 목을 매고 있다.

우리는 개성공단에 두고 온 피땀 같은 재산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중북좌파도 아니고 기업하기 위해 개성공단에 들어간 기업인일 뿐이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인지 황 대표는 되돌아 봐야 한다.

황교안 대표는 우리 개성기업인들을 두 번 죽이지 말라. 또다시 우리 개성기업인들을 정쟁의 도구로 삼을 경우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